월정사, 금강경 '10만 기도혁명' 나선다

4월 8일 '금강경 봉찬기도' 입재
매월 둘째 토요일 철야정진 진행
전용 앱, 유튜브 통해 기도 동참
온오프라인 기도체계 완성 '주목'
2025년까지 1만 명 동참이 목표



금강경 봉찬기도를 홍보하는 월정사 유튜브 영상(사진 왼쪽)과 금강경 봉찬기도 전용 앱 '월정사 금강경' 화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가 금강경 봉찬을 통한 기도 신행결사에 나선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은 오는 4월 8일 오후 7시 경내 적광전, 문수선원에서 '10만 원력 기도혁명-금강경 봉찬기도'를 입재한다.

월정사의 '금강경 봉찬기도'는 조선불교조계종을 창종한 한암 중원 선사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매일 봉독하는 기도 신행결사다. 특히 한암 중원 선사가 오대산 불교 발전을 위해 발족했던 '오대산석존정골탑묘찬앙회'를 100년만에 복원하는 결사여서 의미가 크다.

이번 '금강경 봉찬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일상화된 온라인 기도를 접목해 온오프라인 신행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금강경 봉찬기도'를 위해 월정사는 전용 앱인 '월정사 금강경'을 개발했다. '나의 신행일기'에서 기도함에 향을 사르고 1000원을 올린 뒤 금강경을 1회 이상 들으면 연꽃 도장이 찍히며 출석이 인정된다. 또한 기도 일수가 누적되면 레벨과 법위를 상승시킬 수 있다. 열심히 참여한 신도에게는 온라인 기도 참여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월 둘째주 토요일마다 월정사 적광전과 문수선원, 템플스테이관 등지에 모여 철야정진을 한다. 토요일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4시 새벽예불까지 이어지는 철야정진은 금강경 법문과 금강경 독송, 금강경 진언 기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매일 조석 예불에는 봉찬기도 축원이 이뤄진다. 철야정진과 조석 예불 모두 유튜브와 전용 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월정사 교무국장 자현 스님은 "기도의 확대가 명상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기도를 명상과 접목해 젊은이들에게는 스트레스 극복을 노인들에게는 삶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한다"면서 "단순히 1회성 행사가 아니라 1년에 2차례 1000명 규모의 기도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월정사는 '금강경 봉찬기도'와 확대·연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 중이다. 〈금강경〉 기도 공덕을 강조해 선불교의 우수성을 진작하고 선원문화 후원을 유도하며, 〈금강경〉이 예수재와 탑다라니를 통한 명정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조명해 사후에도 공덕이 큰 경전임을 알려 '삶과 사후를 관통하는 기도'로 만들어 나간다는 게 자현 스님의 설명이다.

또한 월정사는 중대 사자암-상원사-북대 미륵암을 연결하는 오대산 성지순례코스를 활성화도 추진한다.

자현 스님은 "규칙적인 기도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KCI와 SCI급 학술지에 등재할 것"이라며 "올해 내 3000명의 기도 동참자를 모집하고 2025년까지 1만명의 동참자를 모집하겠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 최대 기도혁명을 완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에릭 브리파 "난 사찰음식 대변인…세계화 지원"

3월 24일~4월 1일 방한…백양사, 진관사 시연 참여

"자연주의 음식이 트렌드
발효식 활용 매우 인상적"
사찰음식 조리 수업 참관

세계 3대 명문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 본교 학과장 에릭 브리파 셰프〈사진〉가 한국을 찾았다. 오로지 사찰음식을 맛보고 연구하기 위해서다. 그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방한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백양사 천진암과 진관사에서 사찰음식과의 레시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향적세계에서는 사찰음식 조리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브리파 학과장은 3월 27일 향적세계에서 진행된 사찰음식 수업 참관에 앞서 진행된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자신을 "사찰음식 대변인"으로 소개하고 사찰음식 세계화에 동참할 뜻을 보였다.

브리파 학과장은 "세계 음식문화는 현재 자연주의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사찰음식에는 단순한 자연주의 채식이 아닌 불교철학과 문화가 담겨있다. 현재 세계적 트렌드와 맞닿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인상 깊은 사찰음식 재료로 발효식품을 활용하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전에 사찰음식 명장이신 선재 스님을 통해 각각 5년, 7년, 10년, 30년씩 발효한 간장을 맛본 적이 있다"면서 "발효시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한국 장맛이 매우 인상 깊었고, 발효된 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사찰음식의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사찰음식 전문점인 '발우공양'에서 점심식사를 한 브리파 학과장은 "사찰음식은 자연의 맛을 죽이지 않는 본연의 맛이 느껴진다. 이에 깊이



감동했다"면서 "저 스스로를 사찰음식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직접 보고, 먹고, 체험한 사찰음식의 문화와 철학 정신을 프랑스 요리 명장들에게도 전달할 것"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브리파 학과장은 동명 스님이 진행 중인 사찰음식 수업에 참관했다. 이날 수업에서는 △야채보리밥 △오이된장찌개 △고추부각조림이 조리됐다. 스님들의 수업 모습과 과정을 보며 브리파 학과장은 사용 중인 재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앞서 인터뷰에서 사찰음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재료로 '발효식품'을 꼽은 브리파 학과장은 고추장과 동원 스님의 보리막장을 직접 시식했다. 또한 완성된 고추부각조림을 맛보며 말린 고추를 저장해 식재료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보였다.

사찰음식 참관을 마친 브리파 학과장은 조리장을 나오며 "오늘 참관한 수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각국의 '알리앙스 프랑세즈' 어학연수 기관들이 모이는 자리의 식사 테마가 채식 요리"라며 "이때 불교음식 속 채식 문화와 사찰음식을 선보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세계 3대 명문 요리학교인 르 꼬르동 블루에서는 채소를 재료로 한 '플렌트 베이스' 수업의 정규과정으로 1년에 2번씩 사찰음식 수업을 진행 중이다.

신성민 기자 · 오윤겸 수습기자

동국대 총동창회장에 문선배 신화건설 회장

3월 28일 정기총회서 선출



동국대 총동창회 제30대 회장에 문선배 신화종합건설 회장〈사진〉이 선출됐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3월 28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문선배 신화종합건설 회장을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문 신임회장은 2017년부터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2022년 2월 수석부회장에 임명됐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와 동경장학회 이사장 등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해왔고, 2020년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경제부문상을 수상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감사에 송관수 공인회계사, 윤병관 이지상사 대표이사, 김강균 변호사가 선임됐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년이다.

신성민 기자

제63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개최

4월 7일~8일, 해인사 일원서…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가 4월 7일부터 8일 까지 해인사 일원에서 '제63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을 개최한다.

입재는 4월 7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팔만대장경 이운행렬, 입재, 예불, 사경의식, 법문 등을 진행한다.

4월 8일에는 오전 8시부터 시작하며 대장경 인경체험,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 호국금광명경 합송, 법보전 합장순례 및 정대요잡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은 이틀간 이어지며 참가자가 직접 경판에 먹물을 입혀 인경할 수 있는 '인경 체험'과 '에코백 만들기', '전통열쇠고리 만들기', '솜사탕 나누기' 등 남녀노소,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문화체험은 4월 7일 오후 1시부터 가능하다.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정대불사)' 기념행사는 1961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으며,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누리에 펼치기 위한 기원을 담은 법보종찰 해인사의 전통의식이다.

해인사는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로 전쟁·질병·가난이라는 삼재를 소멸하여 국운융창을 발원한다"며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의 건강과 평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이 종식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흥원, 93개 단체 2억 1250만원 지원

제6기 기관·단체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불교 진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6기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를 3월 29일 발표했다.

이번 6기 공모를 통해서는 총 93곳이 선정됐으며, 지원 총액은 2억 1,250만원이다.

진흥원은 "이번 6기 공모에서는 코로나 이후 불교 포교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불교 기관·단체들의 포교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기 대비 지원 단체수를 50% 이상 증가해 확대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공모를 통해서는 316개 단체에게 총 7억 1150만 원이 지원됐다.

한편, 제7기 공모는 오는 6월에 이뤄진다. 지원 분야는 △불교 신행(수행) 실천 △불교 학술 세미나 및 학술지 발간 △불교 문화 행사 △불교 복지 활동 △불교 포교 활동 △불교 미디어 포교 활동이다.

신성민 기자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풍수의 재정립과 발전방안

코로나로 인해 암울했던 시간을 보낸지 어언 3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 과정 생활풍수CEO 총동문회는 제1회 풍수지리 세미나 개최로 제3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총동문회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 과정CEO 총동문님들과 풍수지리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합과 단합의 시간은 물론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심 스님

주제 :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풍수의 재정립과 발전방안
일시 : 2023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 14:00~17:00
장소 : 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세미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전화 : 운영위원장 김익환 010-9986-3396 운영위원 배영희 010-2705-0959
주최·주관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CEO 총동문회

2023년 4월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CEO
총동문회 회장 안수남 도심

상임수석부회장 이재송 무각 · 운영위원장 김익환 · 운영위원 현낙준 고영걸 배영희 · 감사 최병환 최병호